

2026년 7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PART 1 관광통계

□ '26년 상반기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7월 전망

- '26년 6월까지 홍콩 방한객은 340,6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상승
- 여름방학, 하계휴가 시작 및 7월 유류세 추가 인하로 인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나 '25년 7월이 이례적 고기저구간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둔화 전망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1~5월 '19년 동기 대비 3.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7.24%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37,710	47,197	59,364	70,802	59,888								274,961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5월 '19년 동기 대비 66.8%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29,083	96,260	82,425	64,530	58,539								430,837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5월 '19년 동기 대비 28.9% 증가, 전년 동기 대비 9.3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020,038	9,422,176	10,553,190	11,182,960	10,526,034								51,886,398
2025	9,665,937	7,845,160	9,691,689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5월 ‘19년 동기 대비 91.5% 회복,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807,584	943,368	988,515	1,030,615	927,601								4,697,683
2025	987,169	730,359	871,688	1,176,616	936,205	950,682	1,054,326	1,081,042	790,245	959,946	919,632	1,231,000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5월 ‘19년 동기 대비 77.3%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4.0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4811,700	5,141,714	4,354,229	4,217,311	4,464,840								22,989,794
2025	4,742,066	3,667,671	3,818,512	3,847,934	4,078,938	3,480,979	4,390,514	5,152,837	3,292,197	4,588,515	4,189,272	4,645,397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경쟁국 방문 현황(‘26.1~5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1.82%, 대만 -6.65%, 태국 -2.1%, 싱가포르 -8.93%

○ ‘19년 대비 일본 22.0% 증가/ 대만 72.2%, 태국 63.2%, 싱가포르 65.4%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200,048	233,900	216,300	226,000	207,900							1,084,159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290,748
대만	‘26	76,023	81,833	92,887	107,973	85,809							444,525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598,223
태국	‘26	40,346	55,659	47,371	55,094	47,433							245,903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1,045,198
싱가포르	‘26	19,420	22,100	25,500	34,550	23,960							125,53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 **홍콩 주권반환 29주년 및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합동 기념 행사 최초 개최**
 - 홍콩특구정부는 7월 1일 주권반환 29주년을 맞아 기존의 특구 성립 공식 기념식에 이어 주홍콩중앙인민정부연락판공실(중련판)과 공동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7월 1일 당일에 특구 정부가 공산당 창당 기념 행사를 공동 개최한 것은 1997년 주권반환 이래 역사상 처음 있는 조치임
 -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장관은 기념사에서 "올해 7월 1일은 국가의 발전과 홍콩의 번영을 이끈 근간이자 국가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이라는 뜻깊은 의미가 함께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18개 구역별 기념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 성과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여나갈 것이라 밝힘
 - 시진핑 국가주석은 영상 연설을 통해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이 민족복흥의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및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愛國者治港)'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함
 - 리웨이킹(Starry Lee) 입법회 의장 및 라우시우카이(Lau Siu-kai) 전국 항오연구회 고문 등 현지 정·재계 핵심 인사들은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를 창시하고 실행을 이끄는 주체로서, 주권반환 기념일에 국가 집권당의 역사와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것은 헌법적·법률적 질서 및 '일국양제' 원칙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함
 - 서방 언론 및 일부 분석가의 '홍콩의 중국 일반 도시화' 우려에 대해 현지 전문가 및 관변 단체는 "국가 집권당의 역할과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이해('de-mystification')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필수 과정이며, '일국양제' 하의 자본주의 제도와 독자적 사법권,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 및 자율성은 변함없이 완벽히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함

- **미 정부, 홍콩 관련 국가비상사태 연장 종료 및 제재 대상 일부 조정**
 - 미국은 2019년 홍콩 내 시위 발생 후 사회 안정 및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도입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응하여, 2020년 7월 '홍콩 상황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행정명령 13936호)하고 홍콩의 특별무역지위 박탈 및 주요 인사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시행한 바 있음

- 최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해당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법적 중복 해소 등 행정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제재 대상을 재정비하였음. 이에 따라 폴 램(Paul Lam)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및 둥징웨이(Dong Jingwei) 중앙정부 홍콩국가안보공서 서장 등 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전면 해제함
- 미 국무성 및 재무부는 기존 48명의 제재 대상자 중 존 리(John Lee) 현 행정장관 등 39명에 대해서는 '홍콩자치법(HKAA)' 등 별도 법안에 의한 제재 대상(Non-SDN)으로 이관하여 제재를 유지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무역지위 박탈 조치 역시 지속된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미 측의 이번 국가비상사태 연장 종료 조치에 대해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표명함
- 중국 정부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중 양국의 공동 이익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미국 측이 중국의 주권과 홍콩의 법치를 존중하여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함
- 홍콩 특구정부는 미 정부의 정책적 변화 움직임에 긍정적 평가와 환영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조치가 미·중 관계의 건설적 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무역 중심지로서 홍콩의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인바운드 동향>

□ 한국여행업협회-홍콩관광청, 양국 관광교류 확대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연간 관광교류 200만 명 시대' 목표**

-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홍콩관광청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2026 홍콩 트래블미션' 행사에서 양국 간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 △관광시장 동향·정책·통계 정보 공유 △비즈니스 상담회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관광상품 공동 개발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2025년 기준 홍콩 방문 한국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발판 삼아 연간 200만 명 규모의 한-홍콩 관광교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공동 목표를 제시함
-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2026 홍콩 트래블미션'에는 홍콩 여행업계 38개사와 한국 측 관계자 110여 명이 참가했으며, 홍콩관광청은 현지 문화 체험과 대형 이벤트를 연계한 글로벌 캠페인 '온리 인 홍콩 (Only in Hong Kong)'을 함께 선보임

□ 2026년 상반기 홍콩 방문객 2,670만 명 달성(전년 대비 13% 증가)

- 홍콩 정부는 2026년 상반기 홍콩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약 2,671만 명을 기록했으며, 중국 본토 방문객은 16%, 외국인 관광객은 5%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함
-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쇼핑 중심에서 문화 및 체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박 이상 체류객 기준 약 5,530홍콩달러, 당일치기 방문객 기준 약 1,139홍콩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정부는 '메가 이벤트 플러스 관광'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25년 3월 개장한 5만 석 규모의 카이탁 스포츠 파크(Kai Tak Sports Park)에서 60개 이상의 대형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를 개최해 2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와 연계 소비를 크게 활성화함
- 4월 개최된 '홍콩 세븐스(Hong Kong Sevens)' 자키 대회에 11만 3천 명 이상(외국인 비중 30% 초과)이 방문하고, '아트 마치(Art March)' 기간 동안 아트 바젤 홍콩 등에 5만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단발성 행사를 연계형 테마 체험으로 승화시켜 체류 기간과 소비를 확대함
- 메이블 찬(Mable Chan) 운수물류국장에 따르면 홍콩 국제공항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이후 총 43개 신규 취항지를 추가해 연결 도시를 266개로 확대했으며, 최근 아부다비 노선 재개 및 로스앤젤레스 직항 노선 8년 만의 재운항 등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중동 정세 불안 속 아시아 허브 홍콩의 반사이익: 사우디 최대 테크 박람회 'LEAP East' 3년간 독점 유치

-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글로벌 테크 박람회인 'LEAP'이 중동 지역 외 최초의 해외 진출지로 홍콩을 낙점하여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홍콩관광청(HKTB)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3년(2027~2029년) 간 홍콩을 아시아 독점 개최 도시로 확정함
- 이번 협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및 중동 테크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아시아 시장을 연결할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슈퍼 커넥터'이자 국제 MICE 허브로 홍콩의 독보적인 입지를 재확인한 결과로 평가됨
-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LEAP East' 첫 행사에는 약 2만 5천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이 중 해외 방문객 비율이 55%에 달해 중동 및 글로벌 기술 기업과 아시아 시장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냄
- 이번 유치로 홍콩은 올해 개최된 '컨센서스(Consensus)', '홍콩 Web3 페스티벌'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IT·혁신 박람회 3개를 모두 유치하며 아시아 대표 I&T(혁신·기술) 및 MICE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자평함

- 2026년 상반기에만 100개 이상의 대형 국제 MICE 행사를 개최한 홍콩은 고소득 비즈니스 관광객 및 동반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중동 지역 리스크를 홍콩 MICE 유치 확대 계기로

☞ 안전성·몰입형 콘텐츠·정부 보조금 결합 전략

-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기업들이 걸프만 경유 유럽·미주행 노선을 피하고 아시아로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목적지를 선회함에 따라, 높은 항공 연결성과 지정학적 안정성을 갖춘 홍콩이 대안 허브로 부각됨
- 홍콩관광청(HKTB)은 중국 본토 및 인도 바이어 대상 팸투어를 추진하고, 50주년을 맞은 '홍콩 국제 용선 경주(Dragon Boat Races)', 경마 체험, 지질공원 등 현지 문화·지역 사회 가치와 연계된 고유의 몰입형 MICE 콘텐츠를 적극 전면에 내세움
- 글로벌 기업의 포상관광 트렌드가 단순 관광에서 소규모·체험 중심 및 기업 가치 부합형 행사로 변화함에 따라, 홍콩은 기존 대형 단체 중심 지원책을 400명 이하 중소규모 단체까지 유연하게 확대 지원하며 위축된 기업 예산 장벽을 완화하고 있음
- 홍콩관광청은 외부 악재(중동 위기, 예산 감축)를 기회 요인으로 포착하여 '안전한 허브' 이미지와 '정부 맞춤형 보조금'을 결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대체 수요 흡수를 위한 정책으로 한국 MICE 마케팅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홍콩관광청, 대형 이벤트 티켓 소지자 대상 5% 할인 프로모션 실시

- 홍콩관광청(HKTB)은 소매 및 외식 업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8~9월 예정된 5개 주요 대형 이벤트 티켓 소지자에게 100여 개 제휴처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 티켓 연계 소비 프로모션'을 발표함
- 대상 이벤트는 홍콩 축구 페스티벌 2026(7.31~8.5), 축구 서밋 2026(8.7), TMElive 국제 음악 시상식 2026(8.22~23), 왕쭈룽(Silence Wang) 콘서트

- (9.5~6), 홍콩고궁박물관 이집트 특별전(8월 티켓 대상) 등 총 5개임
- 혜택 적용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실물 또는 전자 티켓을 제시하는 주민 및 관광객은 횟수 제한 없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주요 참여 제휴처는 빅토리아 피크 트램, 웡퐁 360 케이블카, 오션파크 등 주요 관광지와 프리미엄 호텔, 소매점 등으로 식음료, 기념품, 입장권 구입 시 할인이 제공됨
 - 이번 프로모션은 홍콩관광청의 종합 여름 캠페인인 '홍콩 서머 펀(Hong Kong Summer Fun)'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형 스포츠·문화 행사와 현지 소비를 연계하여 방문객의 체류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임

〈아웃바운드 동향〉

- 홍콩 가족 여행객은 '일정 기획'에 큰 부담, 이동 부담 완화 및 체류형 선호 트렌드 속 한국, 여름 휴가지 3위 기록
 -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Trip.com)이 홍콩 여성 여행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자녀 동반 여행 일정 기획'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으며, 여행 일정 관리 및 짐 싸기(48%), 식당 선택(35%), 현지 이동(36%) 등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여름 휴가철 홍콩 가족 여행객의 해외 목적지 순위는 일본(1위), 중국 본토(2위), 한국(3위), 대만(4위), 태국(5위)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푸켓·나트랑·발리·보라카이 등 해양 피서지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의 가족용 호텔 및 관광지 검색량도 대폭 증가함
 - 홍콩 가족 여행객은 복잡한 동선과 다중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저(低)기획·전일 체류(低規劃、全日玩)' 형태의 관광지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단일 장소에서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대형 테마파크, 동물원, 대형 실내 놀이공간 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동 시간이 짧은 GBA(주하이·광저우 등 웨이강아오

대만구) 및 홍콩 현지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는 일정 기획에 드는 시간을 절감하고 가성비를 확보하기 위한 동선 단순화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임

- 항공권 예약 시 전 가족 동반 좌석 확보(43%)와 가성비(38%)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체의 28%는 자녀의 수면 패턴을 고려해 심야/새벽 운항편을 피하고 맞춤형 시간대를 선택하는 등 이동 과정에서의 피로도를 대폭 줄이고자 함
- 홍콩 가족 여행객의 70%가 4~5성급 호텔을 선택하고, 객실 공간 확보(39%), 키즈 친화 시설(37%), 어린이 관광지 인접성(34%)을 주요 고려요소로 꼽았으며, 패밀리 스위트/커넥팅 룸(26%), 항공기 연통석(25%), 주요 관광지 패스트트랙 입장권(22%) 등 이동과 체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비용 지출 의사가 높음
- 홍콩 가족 여행객의 한국행 수요(3위) 유지를 위해서는 동선 이동 부담을 줄인 원스톱 테마파크·휴양형 패키지 상품을 대거 확충하고, 패밀리 맞춤형 고급 숙박 및 패스트트랙 등 프리미엄 편의 옵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홍콩 주민의 GBA(그레이트베이 에어리어) 북상 소비 일상화

: 높은 가성비·편의성 중심의 여름철 단거리 관광 트렌드 분석

- 2026년 7월 공휴일(홍콩 반환 기념일)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철도, 선전만 대교, 강주아오 대교 등 주요 출입경 검문소를 통한 홍콩 주민의 중국 본토(선전·동관·산터우·광저우 등) 방문이 급증함
- 홍콩 여행 업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홍콩인들의 해외여행은 장거리(유럽·미주 등)와 그레이트베이 에어리어(이하 GBA, 웨이강아오 대만구) 단거리 노선을 병행하는 '1장 다(多)단' 형태의 다회차·복합형 소비 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외 장거리 패키지 송출객 수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함
- '항차베이상(港車北上·홍콩 승용차의 본토 진입 허가 제도)'의 정착(승인 운전자 17만 명, 차량 14.8만 대 돌파)과 고속철도 망 확충에 따라 자율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1인당 1,500홍콩달러 이하의 GBA 단거리 실속형 상품 및 자가용 투어가 중단 단계 패키지를 대체하고 있음
- 홍콩 소비자가 본토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은 홍콩 대비 저렴한 물가

(식음료·아동 놀이시설 이용료 등 약 50% 수준), 넓은 공간, 뛰어난 서비스 품질, 선전 실내 스키장(개장 첫 달 40만 명 방문, 홍콩·마카오 객 비중 30%) 및 대형 실내 테마파크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에 기인함

- 아울러 샤오홍슈(Xiaohongshu), 도우인(Douyin) 등 중국 내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홍콩 내 침투율이 상승함에 따라, 미식·문화·기술 전시 등 본토 관광 콘텐츠 정보에 대한 직접 노출과 접근성이 크게 확대됨
- 홍콩의 30~40대 가족 단위 관광객은 장기 휴가(5일 이상) 시 한국·일본·대만·태국 등 해외 휴양지를 선택하는 한편, 주말 및 2~3일 단기 휴가 시에는 이동시간과 시차가 없는 GBA 도시를 방문하여 식음료 및 체험형 학습(박물관·기술관 등)을 즐기는 이원화 소비 행태를 보임

□ 태풍 '바비' 및 '노을' 연속 복상에 따른 홍콩·대만·중국·일본 노선 광범위한 교통 차질 발생

- 연이은 태풍 상륙 및 복상: 7월 중순 제10호 태풍 '바비(Bavi)'가 대만 및 중국 동해안(저장·푸젠성 등)을 강타한 데 이어, 7월 말 제11호 태풍 '노을(Noul)'이 홍콩 인근 광둥성 남부 해안(후이저우 등)에 상륙하며 동아시아 주요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대규모 교통 차질이 발생함
- 홍콩 국제공항 항공편 연쇄 취소·지연:
 - 태풍 바비: 대만(타이베이·가오슝), 중국 본토(상하이·항저우·닝보), 일본(오사카·도쿄·나고야·오키나와) 노선을 중심으로 입국 64편, 출국 71편 등 총 13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 및 지연됨
 - 태풍 노을: 홍콩 직격 및 광둥성 상륙으로 주말 동안 1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추가 취소되었으며, 케세이퍼시픽, 홍콩익스프레스, 홍콩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등 현지 항공사들이 동남아(마닐라, 방콕, 다낭 등), 한국(인천, 대구), 대만 및 본토 노선을 대거 취소·조정함
- 육상·해상 교통망 차질 확대:
 - 홍콩 웨스트카오룽(西九龍)역과 중국 본토(상하이 홍차오, 푸저우, 광저우 남역 등)를 잇는 고속철도 노선이 운행 중단 및 차질을 겪음
 - 대만 및 일본 남부 도서 지역, 광둥성 연안을 잇는 페리 운항도 대거 중단 및 통제됨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6/01.htm?fontSize=1>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kr/index.html>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